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2.10.22 (통권422호)



경제이슈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7.4%

원화 환율, 연중 최저치

경영노트

혁신의 함정

사회 트렌드

롬니지어 vs. 오바말로니

저널 브리프

장기 저성장에 대한 경고

洗心錄

나만의 리듬을 찾자

□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7.4%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경제성장률이 7.4%로 전분기 대비 0.2% 하락하여 7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 경제성장률 추이 : 2012년 1분기 8.1%, 2분기 7.6%로, 2009년 1분기에 6.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교역 축소 :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수출입 규모는 약 2조 8천 억 달러로, 교역 증가율은 전년대비 1.8%p 하락한 6.2% 기록
 - 산업생산 하락 : 기업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산업생산은 상반기보다 0.5%p 하락
- 중국경제가 3분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기부양책의 영향으로 최근 9월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거시경제지표들이 반등세를 나타내어, 향후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 증대

□ 원화 환율, 연중 최저치

- 원/달러 환율은 19일 종가 기준으로 1,103.3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
 - 환율추이 : 원/달러 환율은 대외불안요인으로 상반기 중 1,185원까지 상승하였으나, 5월말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현재 1,100원에 근접
 - 대내요인 :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기조 등으로 원화 절상압력 증가
 - 대외요인 :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유동성이 확대되었고, 미국 경제지표 개선,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대외 불안요인이 다소 완화
- 최근 원화 절상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미약하고, 미국의 재정절벽과 스페인 위기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내재해 있어 원화 강세는 제한적일 전망

□ 혁신의 함정¹⁾

-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혁신 추구는 기업에게 오히려 함정 요인이 될 수 있음
 - 기술혁신이 가져올 혜택의 크기와 고객의 행동변화에 대한 요구 등 비용의 크기에 따라 신기술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음
 -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혁신 기술, 새로운 기술 습득의 어려움,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은 기업에게 함정 요인으로 작용
- 기업은 혁신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소비자 지향적 관점에서 기술이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혁신의 문호를 외부에 개방해야 함

<혁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

	내 용
혁신의 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의 저주(curse of innovation)는 고객에게 주는 혜택은 적으면서 커다란 행동변화를 요구하여 고객이 신기술을 외면해 시장에서 실패하는 경우 • 알파벳 배열이 다른 드보락 키보드가 실패한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쿼티(QWERTY) 키보드에 비해 타자 속도가 약간 빨라지기는 했지만 소비자에게 과도한 타이핑 습관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 •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폰에 비해서 혁신의 크기가 매우 컸지만, 고객은 혜택이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서까지 적극 수용
파괴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 뿐만 아니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창출 노력이 필요 • 그러나 파괴적 혁신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요구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간 제품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라(Mira)라는 웹패드 컨셉트의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대중화로 인한 성과는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패드를 출시한 애플이 독차지
개방형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상품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거나 제품 수명주기가 길면 폐쇄형 연구개발이 유리 • 그러나 치열한 경쟁, 시장 불확실성 증대,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 필요성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 혁신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개방형 혁신이 유리 • 전통적으로 하이테크 기업들은 내부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폐쇄형 혁신을 선호하였으나 최근 들어 외부 선도 기업들과 함께 개방형 혁신 추구

1) ‘작은 성과 위한 너무 큰 희생...나쁜 혁신도 있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2.09.15)를 요약정리함.

□ 롬니지어 vs. 오바말로니²⁾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 캠프가 마지막 TV토론을 앞두고 신조어를 동원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음
 - 22일 밤 플로리다주 린대학에서 열리는 3차 TV토론이 막바지로 접어든 선거전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특히 서로 이름에서 따온 신조어까지 동원해 상대방을 몰아붙였음
 - 오바마는 롬니에 대해 “너무 자주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입장이 무언지도 잊고 있는 것을 ‘롬니지어’(Romnesia)라고 부른다”고 말함
 - 롬니지어란 ‘롬니’(Romney)와 ‘기억상실증’(Amnesia)의 합성어
 - 그는 “롬니지어에 걸렸다면 체온계로 열을 재야 한다”며 “롬니지어에 대한 치료약이 바로 오바마 케어”라고 말하기도 했음
 - 이에 앞서 롬니는 오바마(Obama)와 거짓말(baloney)을 합친 신조어인 ‘오바말로니’(Obamaloney)로 오바마를 공격
- 현재 오바마와 롬니는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정치전문 매체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지난 7~19일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 지지율 평균은 오바마가 47.1%, 롬니가 47.0%임
- 다만 최근 美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쟁점이 된 것은 갤럽 조사만이 유독 롬니가 높다는 점임
 -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롬니가 52%를 얻어 45%에 그친 오바마를 7%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남
 - 7% 포인트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격차인 데다, 다른 기관과 큰 차이가 나는 결과라 오바마 캠프는 물론 여론 분석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
 - 이에 대해 갤럽에서는 조사 대상이 자신들 방식으로 선정한 ‘투표할 가능성이 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힘
 - 공화당 지지자의 투표 참여 의사가 더 강하고, 또 롬니의 TV토론 선전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임

2) ‘롬니지어 vs 오바말로니’(매일경제, 2012.10.22)와 ‘美 대선 갤럽 여론조사, 다른 기관과 큰 차 논란’(조선일보, 2012. 10.22)을 요약 정리함

□ 장기 저성장에 대한 경고³⁾

■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 문제해결 기피 : 각국이 정면 돌파하는 대신 미봉책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미뤘은 것이 가장 큰 이유
 - 근본적 펀더멘털 강화 대신 재정지출 확대에만 의존한 결과 공공부채 급증 및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
- ② 통화정책의 실효성 :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일본의 양적 완화, 중국의 금리·지급준비율 인하 등 확장 통화정책의 실효성 논란
 - 또한 신흥국 증시 및 외환시장으로 유동성이 집중되어 오히려 전 세계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음
- ③ 리더십의 실종 및 국제 공조 부재 : 미국 등 60여 개국의 국가 원수가 바뀌고 세계경제 이슈를 조율할 국제적 리더십은 부재한 상황
 - 경제 현안 해결이 정치논리에 좌우되고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와 고용, 소비심리 등이 위축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대응책으로 다음 3가지 해법을 제시함

- ① 대기업 편중 금융시스템의 변화 :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벌 위주의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함
 - 자원이 온통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창의적 인재들을 위한 벤처캐피탈 등의 지원은 전무함
- ② 중국의존 탈피 :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유럽, 남미, 아세안 등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중국의존도를 낮추어야 함
 - 또한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대 경제동맹체를 형성하여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우위'와 '세계기준 설정력'을 확보해야 함
- ③ 혜택의 공유 : 세계화·기술혁신 등에 따른 혜택이 전 계층에 확산되어야 함
 - 한국의 분배수준은 글로벌 사정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먼저 빈곤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3) '침체 10년 이상 간다, 살려면 빛을 줄여라'(조선비즈, 2012.10.20) 참조

□ 나만의 리듬을 찾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번이다. 무언가 의미 있는 일,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다. 달성 가능한 목표 하에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고 싶어한다. 노먼 빈센트 필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라는 저서에서, “무언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위로 오르고 싶고,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욕망은 기적을 만드는 재료들이다.”라고 말한다. 간절한 욕망을 가진다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수년간 만성피로와 싸워온 나는
 지금도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일이 일상의 과제다.
 이 과제를 훌륭히 수행한 날은 마치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 더 나은 나를 본다.
 삶의 리듬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우리의 가장 큰 꿈,
 더 나아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먼저,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만을 위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혹은 행복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목표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나 나만의 속도 그리고 리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산길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체력을 생각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휴식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마라톤 경기를 예로 들면, ‘페이스 메이커’의 도움을 받는다면 달리기가 훨씬 쉽고 원하는 시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삶은 한 번뿐이고 여행 연습을 할 수도 없다. 인생 여정에서 나만의 리듬을 찾아서 활기차게 살면서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어 가자.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
 추운 겨울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더디 시듦을 알게 된다.

- 論語 -